

여수시·더불어민주당 “지역 현안 해결 한뜻”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국회의원·시의의원 등 60명
지역 주요 현안·해결방안 나뉘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논의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 명과 주철현(갑)·조계원(을)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의원 등 주요 당직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 및 내년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지역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도 사업 국·도비 확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은 △여수사건 특별법 개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조속 추진 △

2025 여수-거문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김 양식장 신규 면허 개발 △북해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 △여수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등이 논의됐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호남권역 대용량 포방사시스템 도입 △사도~남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일레븐 브리지(여수 화태~백야 도로) 건설 △가막만 선소지역 오염물 정화복원사업 △여수석보 주변정비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등 19개가 거론됐다.

여수시는 이날 지역 현안과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의 최대 역점사업인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바다’라는 공유지를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창출하는데 당정과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국회의원도 “여수시 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고민과 갑·을 지역위원회의 고견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세수가 줄어든 지역경제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와 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공동된 바람일 것, 당정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LG화학 여수공장, 생태전 정화 ‘EM흙공 만들기’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이현규)과 (사)여수YWCA(회장 박은경)는 지난 11일 지역의 생태전 정화를 위해 청소년 40여명과 함께 ‘날아라 희망공(EM박테리아 흙공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EM박테리아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군 발효효과 황토를 반죽해 1주일 이상 발효시킨 공으로, 강이나 하천에 투입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녹조 및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이산화

탄소도 흡수해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금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1000개의 흙공은 오는 27일 여수 선소 유적지 부근 해안 산책로를 따라 뿌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날아라 희망공’ 활동을 마친 뒤에는 LG화학 여수공장 견학을 통해 여수산단 및 LG화학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주축사업인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친환경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지역 학도병 6·25 출전 74주년 기념식 성료

6·25참전학도병충훈선양회(회장 고효주)가 주관하는 ‘전남지역 학도병 6·25 출전 74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여수 전남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생존 학도병 및 유족, 무궁훈장 수훈자, 국가유공자, 보훈·안보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도병 추모 영상물 상영 △무궁훈장 전수 △감사패 증정 △6·25참전학도병의 날 정무기념일 지정 촉구 등 호국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고효주 회장은 “충절의 고장, 의향 전남의 자긍심을 드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전남지역 생존 학도병을 모시고 여수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린 나이에도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고귀한 희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남지역 학도병은 한국전쟁 개시 후 입대 의무가 없었던 15~18세의 전남 17개 중학교 학생 183명으로, ‘조국 수호’의 혈서를 쓰고 순전에 임시 주둔하던 국군 15연대에 자원입대, 70여 명이 전사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썸머 페스티벌’ 20일 시작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여름축제 ‘2024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워터샷)’이 오는 20일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된다.

디오션 워터파크 입장객이라면 무료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워터샷’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G.PARK 박명수, DJ찰스, DJ주디, DJ미유를 포함한 20여 명의 국내 정상급 DJ라인업으로 입장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DJ라인업과 무대 특수효과로, 시원하게 워터파크 대개장을 알린 바 있다.

시원한 물놀이와 신나는 음악, 뿔어져 나오는 스트라이트렛과 워터건 물줄기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파도풀에서 올라다보이는 무대 양쪽에 위치한 워터캐논이 거대한 물기둥을 뿔어내며 흥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샷은 여름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각종 물총과 고글의 반입이 가능하며, 7월 20일부터는 현장에 물총 대여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다양한 물놀이시설 외에도 프라이빗한 카바나, 사전예약 후 가져온 음식을 자유롭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바비큐존 등 이색적인 장소로 보다 다채로운 물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디오션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19일부터 ‘더 테라스 바비큐 뷔페’를 운영한다. 바비큐 뷔페는 우대갈비와 한우 등심을 포함한 셀프바비큐, 각종 해산물 및 한식을 포함한 20여종의 샐러드바를 즐길 수 있으며,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와인3종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하계 전지훈련지로 여수를 방문한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구례군 반달곰여자씨름단 선수들이 미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차 씨름교실’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서 전지훈련 중인 영암·구례군 씨름 선수 재능기부

하계 전지훈련지로 여수를 방문한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구례군 반달곰여자씨름단 선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씨름단 선수들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하계 전지훈련으로 여수를 선택, 여수공업고등학교 씨름장에서 각종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전남 유소년 씨름 자변화대 사업의 일환으로 훈련 일정 중 시간을 쪼개 여

수미평초등학교에서 ‘오랫차 씨름교실’을 운영하며 재능기부를 펼쳤다.

선수들은 미평초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일(10·11·17·18·24일)에 걸쳐 진행한다. 앞선 행사에서 학생들이 프로선수의 시범경기를 관람하고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에는 2022년 천하장사 김민재 선수(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가 직접 참여할 것으로 의사를

전달, 학생뿐만 아니라 여수공고 씨름부 선수단 등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지훈련 기간 중 선수들의 재능기부는 지역사회에 좋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며 “참여한 학생들이 씨름에 높은 관심을 보여 이번 활동이 지역 씨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문수동 새마을지도자회, 아이나래 놀이터 방역 봉사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여문공원에 위치한 아이나래 놀이터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옥기)와 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10일 여문공원에 위치한 아이나래 놀

이터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 10여 명은 물놀이장 개장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

는 아이나래 놀이터를 방문해 미끄럼틀 등 아동 이용시설을 직접 닦고 소독하였으며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청결 활동을 펼쳤다.

박미숙 부녀회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는 주민 모두에게도 소중한 공간이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아이들을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동 관계자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칠 걱정, 더러워질 걱정 없이 청결한 놀이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터와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